

대동맥 판막치환술의 임상성적

원광대병원 흉부외과학교실

최순호 · 이삼윤 · 양현웅 · 최종범

1986. 8월부터 1996. 7월까지 원광대병원 흉부외과에서 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은 58례의 임상성적을 보고하는 바이다.

1. 연령분포는 10세에서 70세까지였고 40대가 가장 많았고 남녀의 비는 1.9:1로 남자에 많았다.
2. 수술전 진단은 대동맥판부전증이 41례로 가장 많았다.
3. 동반된 심장질환으로는 대동맥바리증과 상행대동맥류가 7례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선천성심질환(심실중격결손증, 동맥간개존증, 대동맥하막상 협착증) 6례, 심내막염 4례, 허혈성심질환 4례, 판막주위누출 1례, 판막혈전증 1례 순이었다.
4. 수술에 사용된 인공판막은 St. Jude mechanical valve 54개로 가장 많았고 ATS 2개, Sorin 1개 Carpentier-Edward 1개였고 23 mm의 판막을 가장 많이 사용 하였다.
5. 심폐기가동시간은 평균 145.7분이었고 대동맥차단시간은 109.6분이었다.
6. 대동맥판막치환시 동반된 수술은 선천성 심질환교정 7례, Bental operation 4례, 상행대동맥치환술 3례, 영구박동기거치술 3례 순이었다.
7. 수술후 합병증은 슬후출혈 4례, 상처감염 4례, 저심박출증 3례, 횡격신경마비 2례, 부정맥 2례순이었다.
8. 추적관찰중 판막에 의한 합병증은 anticoagulant related hemorrhage 3례, thromboembolism 2례순이었다.
9. 총사망은 4례로써 사망율은 6.9%였고 병원사망은 2례로써 3.4%, 만기 사망은 2례로써 3.6%였다.
10. 슬후 추적관찰은 생존자 56명중 추적을 놓친 2명을 제외한 54명에서 시행하였고(2625 환자-년), 평균 50.5 환자-년이었으며 생존율은 96.3%였다.

결론적으로 대동맥치환술의 단기 및 중기성적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